교육장 지역 추천제 본격 추진… 첫 인사개혁

전북교육청, 17일까지 후보자 신청접수… 도내 교원·교육전문직·현직 교육장 등 대상

천호성 교육감 당선인, 전주 미산초 찾아 교권 보호·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의지 밝혀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첫 인사혁신 정책으로 '교육장 지역 추천제'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취임 전 첫 학교 방문지로 전주 미산초등학교를 찾아 교권 보호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의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교육 발전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장 지역 추천제를 시행하고 지난 12일부터 후보자 추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장 지역 추천제는 천호성 당선인 인수위 출범 이후 추진되는 첫 인사 정책으로,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전북교육의 미래를 이끌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추천 대상은 전북지역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이며 현직 교육장도 포함된다. 접수 기간은 12일 오전 9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다. 지원자는 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작성해 미래교육연구원 '유레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청은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소통 능력, 합리적 리더십, 정책 실행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교육장을 선발할 방침이다. 또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 다면적 검증 절차를 거쳐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를 엄정하게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1일 전주 미산초등학교를 찾아 교사와 학부모, 학생 대표, 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제도는 천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청렴·인사 혁신 정책의 일환이다. 교육청은 독립형 특별감찰관제와 특별감찰위원회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함께 추진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장 지역 추천제는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지역 맞춤형 교육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당선인은 지난 11일 전주 미산초등학교를 찾아 교사와 학부모, 학생 대표, 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미산초는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로 인해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온 학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남용 문제, 장기 미등교 학생 관리 문제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과 장기간 지속되는 수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다. 특히 악성 민원과 반복적인 고소·고발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학생 대표 역시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체계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이날 미산초 교육공동체는 교권보호 전담기구 신설, 악성 민원 통합 대응 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 대응 제도 개선, 민원 대응 시스템 정비, 교권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제안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참여 비율을 최소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현재 전북의 교사 참여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아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천호성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산초 문제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라며 "교사가 민원과 갈등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고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육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미산초 사례를 전북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참석해 교권 보호 정책을 제안했다.

오도영 지부장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갑질 등으로 고통받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내 교권 전담 조직인 '교권국' 신설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교권 침해 대응과 피해 교원 회복 지원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조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불필요한 추가 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앞으로 교육감 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교권 보호 관련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 교육계에서는 천호성 당선인이 교육장 지역 추천제와 교권 회복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인사 혁신과 학교 현장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만큼 향후 교육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에듀페이 부정사용 방지

전북교육청, 가맹점 현장점검… 8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에듀페이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맹점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8월까지 전북에듀페이카드 사용처를 대상으로 정기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북에듀페이가 교육비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맹점을 방문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방식의 암행점검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결제와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허용 품목 및 서비스 판매 여부와 가맹점 운영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교육청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정 사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시·군 교육지원청 모니터링단과 협력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가맹점 안내서 제작·배부와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관리에 힘써왔다.

/오상근기자

도내 학부모 소통·성장 공간 무료 개방

전북학부모지원센터, 동아리 등 지원… 화~금요일 무료 대관

전북학부모지원센터가 도내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 내 모임 및 교육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고 대관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

이번 공간 개방은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와 소규모 모임, 교육·상담 활동 등을 지원해 학부모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관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부모와 학부모 동아리이며, 교육 관련 단체와 기관도 사전 협의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나 영리 목적의 사용은 제한된다.

개방 공간은 이용 목적과 규모에 따라 세 가지로 운영된다. 강의와 교육, 설명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배움ON' 공간은 최대 20명까지 이용 가능하며, 동아리 활동과 회의,

스터디를 위한 '생각ON' 공간은 최대 12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자율 모임과 문화 활동, 상담 등을 위한 '공감ON' 공간은 최대 8명 규모로 운영된다.

공간 이용 시간은 월요일과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용 시간은 1일 최대 3시간 이내이며 이용료는 전액 무료다.

공간 대관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단체는 먼저 전북학부모지원센터에 전화로 이용 가능 일정을 확인한 뒤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센터의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공간 안내와 대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걸 센터장은 "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들이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라며 "많은 학부모와 동아리들이 부담 없이 방문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학부모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중심의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완산학원을 둘러싼 인사와 계약, 이사회 운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들은 임시이사회가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각종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완산학원 인사·계약·이사회 운영 논란 확산

공금횡령 징계 전력자 핵심 보직 배치·절차 위반 의혹 제기

일부 교직원들, 현 상황 '비리 전력자 핵심 보직 배치' 등 규정

전북교육청에 관련 인사 적법성 검토·운영실태 점검 등 촉구

완산학원을 둘러싼 인사와 계약, 이사회 운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직원들은 임시이사회가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각종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는 공금횡령 징계 전력이 있는 직원 A씨에 대한 보직 부여 문제가 있다.

교직원들은 A씨가 과거 완산학원 설립자 일가의 53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인물임에도 행정실장 직무대리와 법인국장 직무대리를 동시에 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인사가 학원 인사규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학교 재정과 계약 업무가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A씨가 학교 시설공사와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KBS 탐사보도를 통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이른바 '이끼액자 특혜계약' 사례의 핵심 자료가 완산학원 관련 계약 자료였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교직원들은 수십억 원 규모 시설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회 운영 절차를 둘러싼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교직원 측은 일부 인사와 겸임 발령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와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인사안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회의록에는 사후 소급 의결과 관련된 발언까지 기록돼 있어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회의록 공개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교직원들은 최근 이사회 회의록에서 인사 관련 안건이 비공개 처리되거나 세부 내용 확인이 어렵게 작성됐다며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취지에 맞는 공개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관 개정 추진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교직원들은 법인 내 전보 조항 신설과 이사 정수 축소 등이 포함된 정관 개정안이 이사장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과거 교원 전보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유사한 인사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교직원들은 성명서와 의견서를 통해 정관 개정 중단과 구성원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교직원들은 현재 상황을 △비리 전력자 핵심 보직 배치 △인사 절차 위반 의혹 △밀실 운영 논란 △권한 집중 시도로 규정하며 전북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인사의 적법성 검토, 시설공사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 이사회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촉구했다.

다만 이번 내용은 교직원 측이 제기한 주장과 자료를 토대로 정리된 것으로, 실제 위법성 여부와 사실관계는 향후 전북교육청 감사와 관계기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완산학원 측의 공식 입장과 해명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상근 기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안전관리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관계자 대상 사전교육… 안전한 대회 운영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자 대상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3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14개 시·군 업무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학교스포츠클럽 현장지원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에 적용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현장 점검 등 필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을 비롯해 참석자 안전대책 마련, 대피 경로 확보, 체육행사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안전점검 방법과 시기, 안전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행사장 안전 확인 사항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회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임영근 문예체건강과장은 "법정 의무교육을 통해 대회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며 "대회 규모와 여건에 맞는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도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표적인 학교 체육행사다. /오상근 기자

군산교육지원청, 교원 대상 마음건강프로그램 내달 9일까지

군산교육지원청이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쉼이 있는 목요일, 2026년 교원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산교육지원청은 교원의 마음건강 증진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을 오는 7월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원 등 130여 명이 참여하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별 신청 인원이 당초 계획을 넘어서는 등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참여 인원을 확대해 현장 교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첫 프로그램은 지난 11일 군산 월명산 일원에서 진행된 '힐링 숲 탐방'으로 시작됐다. 참가 교원들은 숲길을 함께 걸으며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일상에서 쌓인 긴장과 피로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